



## 전개공,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조직문화 조성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4일 공사 1층 강당에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윤리의 날(6월 2일)'을 맞아 임직원의 청렴 인식 제고와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조직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갑질 행위와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양상, 주요 갑질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갑질근절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김대근 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우리 임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였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5월 반부패·청렴 서약식에 이어 '청렴 N행시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전주비전대, 재학생 격려 간식 이벤트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4일 기말고사 앞두고 재학생 격려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간식 제공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대학의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특히 우병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임서현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등굣길에 나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전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우병훈 총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대학의 주인공"이라며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흘린 땀과 노력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대는 언제나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함께 걷는 대학이 되겠다"며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서현 총학생회장은 "학업과 진로 준비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학우들에게 오늘 응원이 작지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연화사 도연·법화스님,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4일 군수실에서 연화사 도연스님과 법화스님이 장학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고(故) 김옥순 여사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즉흥적으로 30만원을 모았고, 여기에 연화사 신도회가 20만원을 더해 마련된 금액으로 이뤄졌다.

기탁식에 참여한 도연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이 마음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보탬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도연스님과 고 김옥순 여사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화사의 도연스님 및 법화스님의 장학금 기탁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나눔 문화 확산과 종교계의 사회적 역할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진인=우태만 기자

# 전주시에 소아암 환우 돕기 위한 기부금 전달

적십자 전북, 사랑의 기부금 1140만7000원 전달... 5가정에 200여만원씩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사회장 이선홍)는 4일 전주시에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기부금 1,140만7,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명륜진사갈비(대표 도선에)가 어려운 소아암 환우 가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것으로, 전주지역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 5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



은 "소아암 환우 가정에 작지만 큰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 가정을 위해 기부해주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과 명륜진사갈비 도선에 대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 힘을 내 하루빨리 완치되길 희망하며, 전주시도 앞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4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3자 간 정보지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재해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관 간 자원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의 규격, 수량 기술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장애 발생 시 상호 요청에 따라 즉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특히 협약기관 모두 전북혁신도시에 모여 있어 거리가



2km 이내로 가까워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원 공유를 통해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협약기관들은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등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

다.

조영훈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의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정읍시민의 창의가 시정을 바꾼다... 우수 제안 10건 선정

정읍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 페스티벌의 수상작 10건을 발표하고,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새롭게 시행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모해 총 309건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부서 검토와 실무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공무원 부문별로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지난 2일 열린 시상식을 통해 공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시상장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시민 부문 우수상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말 직장인 참여 프로그램(시기동 오오기) ▲정읍을 세계 첨단과학도시로 제안(상교통 이오협)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청소년·청년을 위한 시내 순환 노선 버스 추가(이영변



김오규) ▲상시적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체험장 운영 제안(내장상 등 최오인)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국립민여가캠핑장 주말 장터 운영(가솔보급과 문오숙) ▲안전한 정읍 만들기(이영변 김오산) ▲정읍맛집에 관광정보 QR코드가 포함

된 테이블세팅지 제공(민원지적과 최오룡)이 우수상을 받았고 ▲아라리오나 약천후에 대비한 방파제인 기술 도약(감염병관리과 조오) ▲단풍이인 소풍을 활용 못나인 농산물 판매(감곡면 조오희) ▲공공청사 내 자전거 타이어 자동공기주입기 설치 제안(보건위생과 문오옥)이 장려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이 곧 시정의 발전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이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한국파크골프 피닉스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4일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한국파크골프(대표 장세원)와 파크골프산업 인재 양성 및 현장중심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크골프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 지역 사회 및 관련 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 ▲파크골프지도사 민간자격 운영 및 현장학습 지원 ▲파크골프 대회 및 지역행사 공동 개최 ▲정보 교류와 공동 홍보를 통한 동반 성장 도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장세원 대표는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이 기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첫 실천 사례로 오는 9월 6일 '제1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학생과 지역 주민, 파크골프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행사로,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화성시 여성단체협, 상호 협력방안 논의

남원시는 지난 4일과 5일,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을 방문 지역 명소를 탐방하고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5월 남원시와 화성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행정·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 협의회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최근 개관한 남원피오리움 등을 탐방 남원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체험했다. 남원시 여성단체와 이아영 팀장은 "이번 화성시 방문이 자매도시 간의 우호 증진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복한 맘 부모 교육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교 집단상담 행복한 맘되기 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주제로 한 역할극을 통해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과 자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 어머니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라는 노력을 더 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입실호국원 참배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입실호국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직원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으며, 충혼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헌화과 분향을 실시하였다.

윤순풍 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는 보훈 문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전주교도소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중앙여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캠페인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전주MBC '지구별 라디오(표준 FM 94.3)'와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전주중앙여고 학생 62명과 교사 20명은 '지구를 살리는 1분, 예코 마이크'를 통해 기후 위기적 상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게 된다. 방송은 5일부터 송출될 예정이다.

이날 전주중앙여고에 따르면 '지구를 살리는 1분 예코마이크' 발언이 단순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자기 주도적 환경 행동 캠페인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 학령기부터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을 장려하는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됐다.

/장은성 기자